

겸양부사 竊의 기원과 발전 과정*

— 완화 표현을 통한 공손성 표시의 예

장정임**

목 차

1. 서론
2. 竊의 기원과 문법화 과정
 - 1) 동사 '훔치다'
 - 2) 부사 '몰래'
 - 3) 부사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 4) 겸양부사
3. 완화 표현과 겸양부사 竊의 탄생
 - 1)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 2)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 3)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 4) 竊: 발화 수반력 완화를 통한 공손성 표시
4. 결론

국문초록

상고 한어에는 동사 앞에 쓰여 겸양과 공경을 나타내는 겸경부사(謙敬副詞)가 다수 존재한다. 본고는 상고 한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겸양부사 竊 '개인적으로', '사사로이'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 竊가 겸양부사로 쓰이게 된 화용적 배경을 탐구한다.

竊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

1단계: 竊는 동사로 '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몰래] (즉, [-공개적, -공적])이라는 의미 형질이 있다.

2단계: 竊가 동사 '훔치다'에서 부사 '몰래'로 문법화되었다. '훔치다'는 [-공개적, -공적]의 의미 형질을 지니므로, 부사 '몰래'로의 문법화는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 '훔

* 본고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7363).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치다' > '몰래'로의 문법화는 세계 언어에서 흔히 관찰된다.

3단계: '몰래'[-공개적, -공적] > '개인적으로' > 겸양부사로 문법화되었다. 겸양부사 竊는 주로 대화에 등장하는데, 화자와 청자의 지위 차이를 통해 竊가 겸양부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竊 뒤에는 주로 의견·주관 표시 동사, 감정·심리 동사, '보다'·'듣다' 류 동사, 요청·바람 동사가 쓰였다. 이러한 동사 앞에 쓰인 竊는 주어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보고 들은바, 요청에 대해 단언을 피하고 완곡히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竊는 Caffi(1999, 2007)의 세 가지 완화(mitigation) 표현 중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hedge)'에 해당한다. 상고 한어의 竊는 대화체에 쓰여 청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화자가 단언을 피함으로써 공손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키워드: 상고 한어, 문법화, 겸양부사, '흠치다', '몰래', '개인적으로', 완화,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공손성

1. 서론

상고 한어에는 동사 앞에 쓰여 공경과 겸양을 나타내는 겸경부사(謙敬副詞)가 다수 존재한다.¹⁾ 겸경부사는 공경부사(恭敬副詞)와 겸양부사(謙讓副詞)로 나뉜다. 공경부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請 '요청하며', 幸 '다행히', 謹 '정중히', 敬 '삼가', '공손히', 蒙 '...을 입어', 惠 '은혜를 베풀어', 辱 '욕되게도' 등이 있다. 겸양부사는 화자 자신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竊 '몰래', '사사로이', 敢 '감히', 忝 '황송하게도', 猥 '외람되게도', 伏 '엎드려' 등이 있다.²⁾ 겸경부사는 주로 대화나 서간문, 상소문 등에 빈번히 쓰였다.³⁾ 예를 들면,

1) 겸경부사에 대한 논의는 이종호, 『한문 문법 기본상식 64』, 서울: 지성인, 2017(陳必祥主編, 『古代漢語三百題·語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의 번역본인),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01, 358~361, 장정임, 「[행위자+見+타동사] 구문에 쓰인 見의 기원과 품사 및 기능」,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2023, 장정임, 「중국어 표현성 겸경형태소의 분류 및 의미자질 분석」,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2025를 참조.

2) 이종호(2017) 149~151쪽에서 발췌.

3) 李佐豐, 『古代漢語語法學』, 北京: 商務印書館, 2017, 200~201쪽 참조.

- (1) 對曰：“堯、舜，其民未至爲之禱也，今王病，而民以牛禱，病愈，殺牛塞禱，故臣竊以王爲過堯、舜也。”『韓非子·外儲說左』
 대답하기를, “요임금이나 순임금도 백성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지금 왕이 병드니 백성들이 소를 바쳐 기도하고, 병이 낫자 소를 잡아 기도를 들어준 데 보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들은 개인적으로 왕께서 요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臣竊以王爲過堯、舜也에서 부사 竊 ‘개인적으로’, ‘사사로이’가 以...爲... ‘...가 ...하다고 생각하다’와 쓰여 주어 臣의 견해를 완곡하게 제시하였다.

본고는 겸양부사 竊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竊가 ‘훔치다’라는 동사에서 ‘몰래’, ‘사사로이’라는 의미의 부사를 거쳐 겸양부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논의한다. 우선 竊의 기원을 살펴보고, 竊의 용법을 분석하여 竊의 문법화 과정을 탐색한다. 竊가 겸양부사로 쓰이는 이유는 완화(mitigation) 현상의 일종이다.⁴⁾ 즉, 竊는 단언의 정도를 낮추는 완화 표현으로 공손성을 표시한다.

2. 竊의 기원과 문법화 과정

『說文·卷八·米部』는 竊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⁵⁾

盜自中出曰竊. 小徐曰: 所謂亂在內爲宄也. 按春秋曰: 盜竊寶玉大弓. 盜自中出也. **안에서 (몰래) 훔쳐 나오는 것을 ‘竊’이라고 한다.** 小徐(=徐鍇, 920~974)는 “어지러움이 안에 있는 것을 宄(궤)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春秋』에는 “도둑이 보옥과 대궁을 훔쳤다”(盜竊寶玉大弓)라는 구절이 있는데, 도둑이 안에서 (몰래) 훔쳐 나온 것이다. **從宄米.** 米自宄出. 此盜自中出之象也. 會議. **宄과 米는 뜻 부분에 해당한다.** 쌀(米)이 구멍(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는 도둑이 안으로부터 쌀을 가지고 나오는 형

4) 완화 표현의 정의와 종류는 3장 1)~3)절에서 논의한다.

5) [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333~334쪽. 볼드체는 許慎의 설명이고, 기본체는 段玉裁의 注에 해당한다.

상이다. 회의자이다. 𠂔廿皆聲也. 一字有以二字形聲者. 千結切. 十五部. 𠂔(설)과 廿(입)이 모두 음 부분에 해당한다. 하나의 글자가 두 개의 소리 부분을 갖는다. 千結切이다. 十五部に 해당한다. 廿, 古文疾. 설𠂔, 古文僕. 廿(입)는 古文에서 疾(질)와 같다. 𠂔(설)은 古文의 僕(설)와 같다.

요는, 竊는 穴과 米를 뜻 부분으로 하며, ‘도둑이 안에서(穴) 쌀(米)을 (몰래) 훔쳐 나옴’을 의미한다.

본고는 竊의 검양부사로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十三經, 『韓非子』, 『呂氏春秋』, 『戰國策』, 『史記』에 쓰인 竊의 용법을 분석함으로써 竊의 원래 용법과 검양부사로의 문법화 과정을 탐색한다. 이들 문헌에 쓰인 竊의 용법과 출현 횟수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十三經과 제자백가 문헌 및 『史記』에 나타난 竊의 용법

	동사		부사		총출현 횟수
	‘훔치다’	‘몰래’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겸경 의미 없음	겸경 의미 있음	
『尚書』	3	0	0	0	3
『周禮』	1	0	0	0	1
『禮記』	4	0	0	0	4
『穀梁傳』	1	0	0	0	1
『公羊傳』	1	0	0	0	1
『左傳』	11	4	0	0	15
『論語』	2	0	0	1	3
『孟子』	1	1	0	3	5
『韓非子』	8	3	0	10	21
『呂氏春秋』	11	1	0	9	21
『戰國策』	6	7	0	54	67
『史記』	14	31	3	90	138

『尚書』, 『周禮』, 『禮記』, 『穀梁傳』과 『公羊傳』에 쓰인 竊는 모두 ‘훔치다’라는 동사로 풀이된다. 『左傳』에 이르러 竊의 부사 용법(‘몰래’)이 처음 관찰되며, 『論語』, 『孟子』, 『韓非子』, 『呂氏春秋』, 『戰國策』 등 전국 시대 제자백가 문헌과 『史記』에는 겸경 의미로 쓰인 예가 빈번히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부사 의미로 쓰인 竊 중 소수는 겸경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이러한 예는 『史記』에 3회 관찰된다). 竊는 대부분 대화 및 서간문에 쓰여 화자가 자신을 낮출 때 쓰이며, 이 경우 竊는 겸양부사로 풀이 된다.⁶⁾

1) 동사 ‘훔치다’

竊는 원래 동사로 ‘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몰래] (즉, [-공개적, -공적])의 의미 형질을 지닌다.⁷⁾

- (2) 竊人之財, 猶謂之盜, 況貪天之功, 以爲己力乎! 『左傳·僖公二十四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오히려 도둑이라 부르는데, 하물며 하늘의 공을 탐하여 자신의 힘으로 삼음이랴!
- (3)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禮記·檀弓下』
 강도나 절도, 반란, 도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바깥문도 닫지 않았

6) 겸양부사 竊의 탄생 과정에 관한 연구는 백종이, 「대화 협력원리를 통한 表謙副詞 “竊” 과 “伏” 고찰 - 『史記』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어학』 66집, 2019, 백종이, 「古代漢語 “竊”의 문법화와 인지 기제 분석」, 『중국어학논총』 78집, 2023, 李娟, 「謙敬副詞 “伏”、“竊”의 語法化過程及對比」, 『語言本體研究』 第7期, 2016, 周雨如, 「表敬謙詞 “竊”의 語法化及語意演變」, 『語言文化學術研究』 第13期, 2022 등이 있다.

이 중 周雨如(2022)는 선진 및 양한 시기 문헌에 나타난 竊를 동사, 양태 부사, 겸경부사로 3분하였다. 본고는 竊의 문법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周의 양태 부사를 다시 ‘몰래’ 의미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의미로 세분하였다. 또한, 竊가 겸경부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竊가 쓰인 문장의 종류,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竊를 뒤따르는 동사의 의미형질을 분석하였다. 덧붙여 화용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竊가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키는 완화표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장 2)-4)절, 3장 3)-4)절 참조.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훔치다’를 ‘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라고 풀이하였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즉, ‘훔치다’는 [+몰래]라는 의미 형질을 지닌다.

으니, 이를 大同이라고 한다.

盜 ‘강도질하다’, 竊 ‘절도하다’, 賊 ‘도적질하다’는 서로 다른 의미의 ‘빼앗다’류 동사이다. 이들 중 竊만이 [+몰래] (즉, [-공개적, -공적])의 의미 형질을 지닌다. 이러한 형질은 향후 竊가 겸양부사(‘개인적으로’, ‘사사로이’)로 문법화되는 바탕이 된다.⁸⁾

2) 부사 竊 ‘몰래’

竊가 동사 ‘훔치다’에서 부사 ‘몰래’로 문법화되었다. 상고·중고 한어에서는 동사가 다른 동사의 앞에 쓰여 부사로 문법화되는 예가 자주 관찰된다.⁹⁾ ‘훔치다’라는 동사는 그 자체로 [-공개적, -공적]이라는 의미 형질을 지니므로, 부사 ‘몰래’로 문법화되는 데 개연성이 충분하다.

(4) 舜視棄天下, 猶棄敝屣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 樂而忘天下. 『孟子·盡心上』

순임금께서는 천하를 버리는 것을 마치 헌신짝을 버리듯이 여기었다. 몰래 (아버지를) 업고 도망하여 바닷가에 살면서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서 천하를 잊었다.

(5) 荊南之地, 麗水之中生金, 人多竊采金, 采金之禁, 得而輒辜磔於市, 甚衆, 壅離其水也. 『韓非子·說難』

楚 남쪽에 있는 麗水에서 금이 나서 몰래 금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다. 금을 캐는 것이 금지되어 붙잡히면 바로 시장에서 찢겨 죽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쌓인 시신들이) 강물을 막아 물이 갈라지게 하

8) 선진 시기에는 ‘훔치다’라는 의미로 동사 竊가 쓰였다. 전국 말기부터 진한 시기에 이르러 盜가 이미 竊를 상당 부분 대체하였고, 竊는 주로 부사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 偷가 盜를 대체하였다. 竊, 盜, 偷의 출현 시기와 대체 과정은 王毅力, 「常用詞“竊”、“盜”、“偷”的曆時演變」, 『語言科學』 第6期, 2009 참조.

9) 동사 > 부사로의 문법화 과정은 張誼生, 「論與漢語副詞相關的虛化機制 — 兼論現代漢語副詞的性質、分類與範圍」, 『中國語文』 第1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0 참조.

었다.

‘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몰래’라는 의미의 부사로 문법화되는 예는 세계 여러 언어에서 흔히 관찰된다. 아래의 (6a)와 (6b)를 비교해 보자.

- (6a) 훔쳐 먹다
- (6b) (힐끗힐끗) 훔쳐보다 (=몰래 보다)

(6a)의 ‘훔쳐’는 ‘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본래 의미로 쓰였다. (6b)의 ‘훔쳐’는 ‘몰래’로 풀이된다.¹⁰⁾

‘훔치다’ > ‘몰래’로의 허화는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다. 일본어의 盗む(누스무) ‘훔치다’ 또한 ‘몰래’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예를 들면 盗み見る(누스미미루) ‘훔쳐보다’(=몰래 보다), 盗み聞く(누스미키쿠) ‘훔쳐 듣다’(=몰래 듣다)가 있다. 아래의 盗んで會う(누스데아으)는 ‘몰래 만나다’라고 풀이된다.

- | | | | |
|--------|-----|------------|-----|
| (7) 人目 | を | 盗んで | 會う |
| 히토메 | 오 | 누스데 | 아우 |
| 남의 눈 | 목적격 | 훔쳐 > 몰래 | 만나다 |
- ‘몰래 만나다.’

영어의 동사 steal ‘훔치다’는 ‘몰래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8a). 또한, 형용사형인 stealthy는 ‘살며시(몰래)’라는 의미를 지닌다(8b).

- (8a) He **stole a glance at** her answer sheet.
그가 그녀의 답안을 훔쳐봤다.

10) 한국어 맞춤법에서 ‘훔쳐 먹다’는 띄어 쓰는 반면, ‘훔쳐보다’는 붙여 쓰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훔쳐 먹다’를 띄어 쓰는 이유는 ‘훔쳐’와 ‘먹다’가 독립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훔쳐보다’를 붙여 쓰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훔치다’ + ‘보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응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훔쳐보다’에서는 ‘훔치다’의 원래 의미가 희미해졌다.

- (8b) The cat crept with **stealthy** movement toward the bird.
그 고양이는 새를 향해 살금살금(=몰래) 다가갔다.

요약하면, ‘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 竊는 [+몰래] (즉, [-공개적, -공적])의 의미 형질을 지니며, ‘몰래’라는 부사로 문법화되었다.

3) 부사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竊는 ‘몰래’라는 의미에서 한층 더 문법화되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고 풀이된다. 즉, ‘몰래’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는 모두 [-공개적, -공적]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형질을 지닌다. 따라서 ‘몰래’ >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로의 의미 확장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둘의 차이는 전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자기 생각이나 행동 등을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고 축소하는 기능이 있다.

竊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 (9) 餘善已殺郢, 威行於國, 國民多屬, 竊自立爲王. 『史記·東越列傳』
餘善이 郢을 죽인 뒤, 그의 위세는 나라 전역에서 인정되었고, 백성 중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사사로이 자신을 왕이라 칭하였다.

竊自立爲王는 餘善이 자신의 위세를 믿고 ‘사사로이 왕이라 칭하였다’라고 풀이된다. 竊를 ‘몰래’라고 풀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남에게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의 竊 또한 ‘사사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流涕竊言는 ‘눈물을 흘리며 사사로이 말하다’ > ‘혼잣말하다’라고 풀이된다.

- (10) 四年, 坐侵廟壙垣爲宮, 上徵榮. 榮行, 祖於江陵北門. 既已上車, 軸折車廢. 江陵父老流涕竊言曰, “吾王不反矣!” 『史記·五宗世家』

四年에 사묘의 외벽을 침범하여 궁궐을 지은 일로 황상은 榮을 불러들였다. 榮은 길 가던 중 江陵 북문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고 수레에 오르자 차축이 부러져 수레를 쓸 수 없게 되었다. 江陵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몰래’, ‘암암리에’라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의미로 한층 더 발전하는 예로는 현대 중국어의 私下가 있다. 『現代漢語八百詞』(2006: 511-512)에 따르면 私下는 부사로 背地裏(‘암암리에’, ‘몰래’), 不公開(‘사사로이’, ‘개인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다.

- (11a) 有話當面說, 不要**私下**亂說.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해라. 뒤에서 몰래 말하지 말고. [‘몰래’]
- (11b) 咱們**私下**商量一下.
우리 개인적으로 상의 좀 합시다.
- (11b') 他**私下**跟我說過.
나는 그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11a)에서 私下는 當面과 대비되며, ‘암암리에’, ‘몰래’로 풀이된다. 한편 (11b)와 (11b')의 私下는 ‘비공개로’, ‘개인적으로’라고 풀이된다.

4) 겸양부사

2장 3)절의 예 (9)-(10)에서는 竊가 순수히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뿐, 겸양의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竊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의미로 쓰인 부사 竊는 대다수의 경우 화용적 측면에서 볼 때 겸양을 표시함이 드러났다.¹¹⁾

여러 선행 연구에서 竊가 부사로 겸양을 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劉淇는

11) 각각의 빈도수는 <표1> 참조.

“竊”는 겸사(謙詞)로, 직접적으로 어떠한다고 감히 말 못해서 竊이라고 한다.”라고 언급하였다.¹²⁾ 楊伯峻(1981: 120)은 “竊”는 부사로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은밀히’, ‘몰래’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하나는 고대인의 겸양 표현으로서, 현대 중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대응 번역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다.¹³⁾ 楊伯峻·何樂士(2001: 360)는 竊가 “동사 앞에 쓰여, 화자 본인이 감히 직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을 나타냄으로써 겸손을 표현한다.”¹⁴⁾라고 설명하였다. 李國英·李連福(2007: 128)은 “竊”는 부사로, ‘私下’(‘몰래’, ‘개인적으로’, ‘사사로이’)의 의미이며, 화자가 제시하는 논의나 견해가 개인적이며 미성숙한 사건임을 표시한다.”라고 설명하였다.¹⁵⁾

본고는 해당 코퍼스에서 부사 竊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를 다수 발견하였다. 이러한 부사 竊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주로 대화나 서신에 등장하며, 화자의 지위가 낮거나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臣 ‘신하’, 仆 ‘종’, 其僕 ‘그 종[=화자 자신]’, 弊邑 ‘저희 고을’, 敝邑寡君 ‘저희 고을 임금’, 丘 ‘구[공자의 이름]’ 등), 청자의 지위가 높다(王 ‘왕’, 君 ‘군’, 足下 ‘족하’, 公 ‘공’ 등).

둘째, 竊 뒤에는 주로 (i) 의견·주관 표시 동사,¹⁶⁾ (ii) 감정·심리 동사,¹⁷⁾

12) “凡云竊者，謙詞，不敢徑直以爲如何，故云竊也。”[清]劉淇，『助字辨略』，北京：中華書局，2001，258쪽.

13) “竊”作副詞用，有二種用法。一種有實義，‘暗中’，‘偷偷地’之意；一種是古人自謙之辭，現代已不用，也難以對釋。”楊伯峻，『古漢語虛詞』，北京：中華書局，1981.

14) “用於動詞前，表示說話者本人不敢徑直行動之意以表謙遜。”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語文出版社，2001.

15) “作副詞，有‘私下’之意，以表發表意見的一方所發議論或見解乃個人不成熟之私見。”李國英·李連福，『古代漢語教程』，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2007，128쪽

16) 이러한 동사로는 [以]爲 ‘...라고 생각하다’, [不]取 ‘(의견 따위를) 취하다[취하지 않다]’, 計 ‘셈하다’, 疑 ‘의심하다’, 慮 ‘고려하다’, 案 ‘상고(詳考)하다’, 料 ‘생각하다’, 意 ‘의미하다’, 比 ‘비대어 말하다’, 笑 ‘웃다’, 譬 ‘비유하다’, 負 ‘배반하다’, 量 ‘헤아리다’, 度 ‘재다’, 嘉 ‘칭찬하다’, ‘기리다’, 不自外 ‘자신을 남이라고 여기지 않다’, 必 ‘믿다’, ‘신뢰하다’, 危

(iii) ‘보다’·‘듣다’류 동사,¹⁸⁾ (iv) 요청·바람 동사¹⁹⁾가 쓰였다.²⁰⁾ 이러한 동사 앞에 쓰인 竊는 주어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보고 들은 것, 요청에 대해 단언을 피하고 완곡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竊는 겸양부사로 간주한다.

아래의 <표2>는 겸양부사 竊(‘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뒤에 쓰인 동사를 분류하고, 출현 빈도수를 요약하였다.

<표2> 겸양부사 竊(‘개인적으로’, ‘사사로이’)를 뒤따르는 동사 및 빈도수

	(i) 의견·주관 표시 동사																			
	(以)為	(不)取 ²¹⁾	計	疑	慮	案	料	意	比	笑	譬	負	量	度	嘉	不自外	必	危[之]	怪[之]	美[之]
『論語』	·	·	·	·	·	·	·	·	1	·	·	·	·	·	·	·	·	·	·	·
『孟子』	·	1	·	·	·	·	·	·	·	·	·	·	·	·	·	·	·	·	·	·
『韓非子』	4	1	·	·	·	·	·	·	·	1	·	·	·	·	·	·	·	·	·	1
『呂氏春秋』	·	1	·	·	1	·	·	2	·	·	·	·	·	·	·	·	·	·	·	·
『戰國策』	9	7	3	2	1	1	1	·	·	1	1	1	·	·	1	1	2	4	1	1
『史記』	17	11	5	1	·	1	1	·	·	·	·	1	1	1	1	1	1	7	2	·

(ii) 감정·심리 동사											(iii) ‘보다’·‘듣다’ 동사		(iv) 요청·바람 동사		합계		
羞	患	恐	悲	怨	恥	憂	閔然不敏	惑	憐愛	好	不勝犬馬心	聞	觀	見		有請	願

[之] ‘위험하다고 여기다’, 怪[之] ‘이상하다고 여기다’, 美[之] ‘아름답다고 여기다’가 있다. [之]는 之 혹은 직접목적어가 쓰인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17) 羞 ‘수치스럽다’, 患 ‘걱정하다’, 恐 ‘무섭다’, 悲 ‘슬프다’, 怨 ‘용서하다’, 恥 ‘부끄럽다’, 憂 ‘근심하다’, 閔然不敏 ‘걱정하며 민첩하지 못하다’, 惑 ‘의아하다’, 憐愛 ‘매우 아끼다’, 好 ‘좋아하다’, 不勝犬馬心 ‘충심을 누르지 못하다’가 있다.

18) 聞 ‘듣다’, 觀 ‘관찰하다’, 見 ‘보다’가 있다.

19) 願 ‘원하다’, 有請 ‘법기를 청하다’가 있다.

20) 이 외에도 不自知 ‘자신을 알지 못하다’가 있으나(『史記』에 1회 출현), 위의 네 부류 중 어디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21) 取와 不/無/弗取를 모두 포괄한다. (의견 따위를) 취하다[취하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위는 張儀가 楚王에게 소국과의 합중(合從)을 깨고, 진나라와 연횡(連橫)하라고 설득하는 내용이다. 竊以爲大王之計過矣에서 竊가 의견·주관 표시 동사인 以爲 ‘...라고 생각하다’와 쓰여 주어 臣의 견해를 완곡하게 제시하였다.

- (13)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論語·述而』
공자가 말하기를, “傳述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하므로, 마음속으로 나를 老彭에 견주노라.”

孔穎達(574-648)는 『論語疏』에서 “不敢顯言故云竊”(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 竊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고 말한다)라고 언급하였다. 竊比於我老彭에서 竊는 공자가 자신을 옛 성현인 彭祖에 비유하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였다.

- (14) 臣聞天下陰燕陽魏, 連荊固齊, 收餘韓成從, 將西南以與秦爲難. 臣竊笑之. 世有三亡, 而天下得之, 其此之謂乎! 『韓非子·初見秦』
제가 듣기로 천하가 북쪽으로는 燕나라, 남쪽으로는 魏나라 및 荊(=楚)나라와 연합하여 齊나라를 견고히 한다고 합니다. 남은 韓나라까지 끌어들여 合從을 이루어 장차 서남쪽으로 秦나라에 대항한다고 합니다. 臣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상에는 멸망하는 경우가 세 개가 있는데, 천하가 이를 모두 갖추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笑는 단순히 ‘웃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웃다’, ‘실효성을 강하게 의심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견·주관 표시 동사로 간주하였다. 臣竊笑之에서 竊 ‘사사로이’는 화자의 의견을 완화하여 표현하였다.

- (15) 今釋霸王之業, 而有事人之名, 臣竊爲大王不取也. 『戰國策·楚策一』
지금 霸王의 業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겠다는 명분을 저는 대왕을 위하여 취하지(=찬성하지) 않습니다.

取는 단순히 ‘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을) 취하다’ > ‘찬성하다’라

는 의미이다. 제자백가 문헌에서 取는 臣竊爲王/君/公子/足下(不/無/弗)取의 형식에 쓰여 ‘신은 (...를 위해) 찬성하다(찬성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不)取를 의견·주관 표시 동사에 포함하였다.

- (16) 今君擅楚國之勢, 而無以深自結於王, 竊爲君危之. 『戰國策·楚策一』
 지금 그대는 초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도 왕과 깊이 결맹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그대를 위해 위태롭게 느낍니다.

危之의 危는 형용사의 의동 용법(意動用法)에 해당하므로 ‘위태롭게 여기다’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이 경우 危를 의견·주관 동사로 분류하였다.²⁴⁾

나. 竊+감정·심리 동사

- (17) 臣竊爲王恐, 恐萬世之後有國者, 非王子孫也. 『戰國策·秦策三』
 저는 대왕을 위하여 두려워하는데, 만세 후에 나라를 차지할 자가 왕의 자손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 (18) 謂秦王曰: “臣竊惑王之輕齊易楚, 而卑畜韓也.” 『戰國策·秦策五』
 秦王에게 말하였다. “臣은 대왕께서 齊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楚나라를 쉽게 생각하며 韓나라를 짐승 취급하는 것이 못내 의아합니다.”

危 ‘위태롭다’, 恐 ‘두려워하다’, 惑 ‘의아하다’는 감정·심리 동사이다. 화자는 竊를 사용하여 자신의 심리 혹은 상태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축소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면, 竊는 겸양부사로 간주된다.

다. 竊+‘보다’·‘듣다’ 동사

- (19) 今臣竊聞貴臣之計, 舉兵將伐韓. 『韓非子·存韓』
 이제 신이 귀국 대신들의 계책을 듣건대, 군대를 일으켜 韓나라를

24) 危之의 분류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을 반영하였다.

치려 한다고 합니다.

- (20) 其僕謂吳起曰：“竊觀公之意，視釋天下若釋羸，今去西河而泣，何也？”『呂氏春秋·長見』
 그의 종이 吳起에게 말하기를, “제가 공의 뜻을 살펴보건대, (주인님께서는) 천하를 버리기를 헨신짝 버리듯이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하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시니, 이는 어째서입니까?”

竊는 聞 ‘듣다’, 觀 ‘관찰하다’와 쓰여 뒤따르는 내용이 화자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내용임을 강조함으로써 보고 들은 내용을 완곡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라. 竊+ 요청·바램 동사

- (21) 見二疏，非所以強於諸侯也。臣竊願陛下之幸熟圖之。『韓非子·存韓』
 이 두 가지 허술한 계책을 드러내는 것은 제후들보다 강국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은 폐하께서 이 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竊는 願 ‘원하다’와 쓰여 화자의 요청을 공손히 제시한다.

요약하면 竊는 ‘몰래’라는 의미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고 풀이된다. 이 경우 竊는 자신의 견해, 심리나 감정 상태, 보고 들은 내용, 요청 등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격하(downgrading) 혹은 축소하는 기능이 있다. 竊는 주로 대화나 서신에 쓰이며, 화자의 지위가 낮거나 스스로를 낮추고, 청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화용적 맥락을 통해 볼 때 竊를 겸양부사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竊가 겸양부사로 쓰인 예는 춘추 말기~전국 시대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양한 및 중고 한어 시기 문헌에도 흔히 관찰된다.

3. 완화 표현과 겸양부사 竊의 탄생

본장에서는 竊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는 의미의 부사에서 겸양부사로 발전한 원인을 화용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竊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는 일종의 완화 표현(mitigation)으로 사용되어, 화자의 어조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을 한다. 竊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 단언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상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있다.

완화(mitigation)²⁵⁾란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이다.²⁶⁾ Caffi(1999, 2007)는 완화 표현이 작용하는 층위에 따라서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bush),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hedge), 화시 중심(deictic center)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shield)으로 삼분하였다.

1)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bush)

이는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절하함으로써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모호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킨다. 예를 들면, 모호성 표현(‘뭔가’, ‘웬지’ 등), 모호한 범주 지시 표현(sort of, kind of ‘일종의’), 모호한 수량 지시 표현(about, approximately, ‘대략’), 지소사(diminutive) 및 여러 절하 표현(작은, 약간, 조금, 가끔, ...은/는 편이- 등) 사용 등이 있다.

25) 완화(mitigation)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affi, Claudia, “On mitigation”, *Journal of Pragmatics* 31(7), 1999, Caffi, Claudia, *Mitigation*, Studies in Pragmatics, Volume 4, Brill, Elsevier, 2007, 고재필,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을 참고하였다. 완화(mitigation)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희석(attenuation), 격하(downgrading), 누그러뜨림(downtoning), 약화(weakening)라고도 불리었다.

26) 고재필(2017) 17쪽에서 인용.

(22) Nešto ne mi e dobro.²⁷⁾
 뭔가 부정 1인칭/단수/여격/접어 be-동사 좋다
 ‘나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23) le do uno scioppino.
 3인칭/단수/여격 주다/1인칭/단수/현재 하나의 시럽+ 지소사(ino)
 da prendere.²⁸⁾
 부정사 가지다
 (의사) ‘기침용 시럽 조금 드릴게요.’

(24) 환자: 속 쓰린 거는 때때로 쓰려요.²⁹⁾

(22)은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명제를 ‘뭔가’(nešto)라는 모호성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의 강도를 낮추었다. (23)는 ‘처방하다(prescrivere)’ 대신 ‘주다’(dare)라는 일반적인 어휘를 사용하였고, 지소사 -ino를 붙임으로써 (scioppo ‘시럽’ + -ino) 명제 내용의 심각성을 낮추고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24)는 ‘때때로’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명제의 내용을 약화하였다.

2)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shield)

이는 발화의 강도를 낮추기 위하여 화시의 중심(deictic center)을 ‘나/너-여기-지금’에서 다른 사람/장소/시간으로 옮기는 기제이다. 즉, 대화의 참여자를 발화자와 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발화 내용과 화자/청자가 맺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발화의 직접성(immediacy)를 감소시킨다. 그 결과, 발화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의사가 환자에게 말한 내용이다.³⁰⁾

27) 고재필(2017) 35쪽에서 발췌, 재구성하였다. 발칸 슬라브어(Balkan Slavic)의 예이다.

28) Caffi(1999) 890쪽, 고재필(2017) 36쪽에서 발췌, 재구성. 이탈리아어의 예이다.

29) 고재필(2017) 95쪽에서 발췌.

이는 화자가 발화 내용에 대해 단언을 피하고 가정적,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화 내용에 대한 책임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영어의 I think ‘...라고 생각하다’, I suppose ‘...인 것 같다’, it seems to me ‘내게는 ...인 듯 보인다’가 있다.

한국어의 예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거로 알고 있다’, ‘잘 모르겠지만...’ 등이 있다.³²⁾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명제가 단지 개인적인 의견/생각이라고 축소함으로써 발화 수반력을 낮춘다. 예를 들면,³³⁾

(29) 의사: 음, 지금 제가 봐서는 환자분 뇌졸중 같지는 않아요, 봐서는.

(30) 의사: 제 생각에는 뭐 나쁜 병 같지는 않습니다.

(29)은 환자가 뇌졸중이 아니라는 명제를 ‘제가 봐서는’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축소하였다. (30)에 쓰인 ‘제 생각에는’ 또한 개인적인 견해로 취급함으로써 발화 수반력을 약화하였다.

이 외에도 추측 표현과 추측 부사, 확인 의문문도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³⁴⁾

(31) 의사: 아마 이 약 드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32) 환자: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3) 환자: 그,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이잖아요?

(31)은 ‘아마’라는 추측의 양태 부사와 ‘-을 것 같-’이라는 추측 표현을 써서 단언의 힘을 약화시켰다. (32)는 부가의문문을, (33)은 부정의문문을 사용하였다.

모든 언어에는 이와 같은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는 기제가 존재한다. 현대

32) 고재기(2017) 29~30쪽 참조.

33) 고재기(2017) 113쪽에서 발췌.

34) 고재기(2017) 107, 114쪽에서 발췌.

중국어의 我認爲... ‘나는 ...라고 생각한다’, 我覺得... ‘제 생각에는...’, 我懷疑... ‘나는 ...인지 회의적이다’, 依我看... ‘제가 보기에는’, 부사 可能 ‘아마도’, 조동사 會 ‘...일 것이다’, 부가 의문문 是不是 ‘...이지 않나요?’ 등이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본고는 상고 한어의 부사 竊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또한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竊: 발화 수반력 완화를 통한 공손성 표시

상고 한어에서 부사 竊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또한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에 해당한다. 竊의 사용은 명제를 [-공개적, -공적]인 영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발화의 힘을 약화한다. 이는 한국어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거로 알고 있다’, 영어의 I think, I suppose, it seems to me 등의 표현이 명제를 화자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하여 단언의 힘을 약화하는 기제와 일맥상통한다.

앞서 2장에서는 竊가 (i) 의견·주관을 제시하는 동사, (ii) 심리·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iii) ‘보다’·‘듣다’류 동사, (iv) 요청·바람을 나타내는 동사와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竊의 사용은 자신의 의견·주관, 심리·감정 상태, 보고 들은 내용, 요청·바람 등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완곡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상고 한어 문법에서 竊는 줄곧 겸양부사로 간주되어 왔다. 왜냐하면 竊가 대화문에 자주 쓰이며, 화자의 지위가 높고 청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본장의 논의를 통하여 겸경부사 竊는 완화 표현에서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완화 표현과 공손성(politeness)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하기도 하나, 이들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완화 표현(특히 hedge)을 통하여 공손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모든 완화 표현이 공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완화 표현의 주된 목적은 공손성이 아니라 화자에 대한 다양한 위협과 책임

을 감소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상고 한어의 겸양부사 竊는 완화 표현을 통해 공손성을 표시하는 일례이다.

4. 결론

본고는 상고 한어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竊 ‘훔치다’가 겸양부사로 문법화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단계: 竊는 동사로 ‘훔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몰래] (즉, [-공개적, -공적])의 의미 형질이 있다.

2단계: 竊가 동사 ‘훔치다’에서 부사 ‘몰래’로 문법화되었다. 상고 한어에서 동사가 다른 동사의 앞에 쓰여 부사로 문법화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훔치다’라는 동사는 그 자체로 [+몰래] (즉, [-공개적, -공적])의 의미 형질을 지니므로, 부사 ‘몰래’로 문법화되는 데 개연성이 충분하다. ‘훔치다’의 부사형이 ‘몰래’의 의미로 쓰이는 예는 여러 언어에서 흔히 관찰된다. 예를 들면, 훔쳐보다 (=몰래 보다), 盜み聞き = ‘훔쳐 듣다’ > ‘몰래 듣다’, ‘엿듣다’, steal ‘훔치다’ > 형용사 stealthy ‘몰래’ 등이 있다.

3단계: ‘몰래’[-공개적 -공적] > ‘사사로이’ > 겸양부사 (‘제가 생각하기로는...’)로 문법화되었다. 겸양부사 竊는 주로 대화에 등장하는데, 화자와 청자의 지위 차이 – 화자로는 臣, 仆 등이, 청자로는 王, 君子 등 높임의 대상이 자주 쓰였다 – 를 통해 竊가 겸양부사로 문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竊 뒤에는 주로 의견·주관 표시 동사, 감정·심리 동사, ‘보다’·‘듣다’류 동사, 요청·바람 동사가 쓰였다. 이러한 동사 앞에 쓰인 竊는 주어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보고 들은바, 요청에 대해 단언을 피하고 완곡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竊는 겸양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

겸양부사 竊의 탄생 과정은 화용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竊는 단언의 힘을 약화하고, 주어의 의견이나 지각, 심리 상태, 바람 등을

완화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Caffi(1999, 2007)의 완화 표현(mitigation) 중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hedge)에 해당한다. 즉,竊는 지위가 낮은 화자가 단언을 피하고 발화력을 완화함으로써 공손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參考文獻

- 고재필,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명운, 「현대국어의 공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영순, 『한국어 화용론』, 서울: 박이정, 2007.
- 백종이, 「대화 협력원리를 통한 表謙副詞 “竊”과 “伏” 고찰 - 『史記』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학』 66집, 대한중국학회, 2019.
- _____, 「古代漢語 ‘竊’의 문법화와 인지 기제 분석」, 『중국학논총』 78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3.
- 이종호, 『한문 문법 기본상식 64』, 서울: 지성인, 2017.
- 이은정 편, 『국어학·언어학 용어사전』, 백산출판사, 2005.
- 장정임, 「[행위자+ 見+ 타동사] 구문에 쓰인 見의 기원과 품사 및 기능」,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2023.
- 장정임, 「중국어 표현성 겸경형태소의 분류 및 의미자질 분석」,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2025.
- 허봉자,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서울: 박이정, 2008.
- 洪成玉, 『謙詞敬詞婉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2.
- 李國英·李連福, 『古代漢語教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
- 李娟, 「謙敬副詞“伏”、“竊”的語法化過程及對比」, 『語言本體研究』 第7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16.
- 李左豐, 『古代漢語語法學』,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劉宏麗, 『現代漢語敬謙辭』,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 2001.
- [清]劉淇, 『助字辯略』, 北京: 中華書局, 2001.
- 呂叔湘主編,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王毅力, 「常用詞“竊”、“盜”、“偷”的歷史演變」, 『語言科學』 第6期, 江蘇師範大學, 2009.
- 吳慶峰主編, 『「史記」虛詞通釋』, 濟南, 齊魯書社, 2006.

- [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楊伯峻, 『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1981.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01.
- 楊樹達, 『詞詮』, 北京: 中華書局, 1954.
- 張誼生, 「論與漢語副詞相關的虛化機制——兼論現代漢語副詞的性質、分類與範圍」, 『中國語文』 第1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0.
- 周筱娟, 「現代漢語禮貌語言研究」,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周雨如, 「表敬謙詞“竊”的語法化及語意演變」, 『語言文化學術研究』 第13期, 北京語言大學, 2022.
- Brown, Penelope & Stepha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Caffi, Claudia, “On mitigation”, *Journal of Pragmatics*. 31(7), 1999.
- , *Mitigation*, Studies in Pragmatics, vol. 4, Brill, Elsevier, 2007.
- Leech, Geoffrey,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1983.
- Leech, Geoffrey,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cCready, El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Honorification: Register and Social Meaning*, 1st e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Pan, Yuling Pan and Dániel Z. Kádár, “Historical vs. contemporary Chinese linguistic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vol. 43, Elsevier, 2011.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Humbling Adverb 竊 *qiè*

— A Case of Marking Politeness through Mitigation

Chang, Jung I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grammaticalization of 竊 *qiè*, originally meaning ‘to steal’, into a humbling adverb in Old Chinese, and traces this development through three distinct stages.

竊 was originally a lexical verb meaning ‘to steal’ and encoded the semantic feature [+secretly]. It grammaticalized into an adverb meaning ‘secretly’. This change was motivated by its semantic properties and followed a common grammaticalization path in Old Chinese, in which the first verb in Verb1+Verb2 construction acquired adverbial functions. Later, the meaning of 竊 broadened from ‘secretly’ to ‘privately’ and ‘personally’, and it was used as a humbling adverb meaning ‘I personally ...’. This development is closely associated with discourse contexts in which a lower-status speaker addresses a higher-status interlocutor. In such contexts, 竊 frequently occurs with verbs expressing opinion, psychological state, seeing and hearing, and volition. Following Caffi(1999, 2007), the use of 竊 in these contexts is best analyzed as a hedge that downgrades the illocutionary force of the utterance. 竊 functions as a humbling adverb that mitigates the force of direct assertion, enabling the speaker to present opinions, psychological states, and related meanings in a polite and attenuated manner.

Key words : Old Chinese, grammaticalization, humbling adverb, ‘to steal’, ‘secretly’, ‘privately’, mitigation, hedge, politeness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

